

목포 만호동 목포진길 11번길 일대 '도심 속 오지' 주민들 40여년 '화장실 설움'

6·25전쟁 이후 정착

노후 주택 화장실 없어

날마다 공동 화장실 이용

市 환경 개선대책 소극적

주민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어 매일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찾아 불일을 보는 일이 '해상관광도시'를 꿈꾸는 목포에서 빛어지고 있다.

'도심 속 오지'로 불리는 목포시 만호동 목포진길 11번길 일대 주민들 얘기다.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걸어가기 힘든 비좁은 골목길 사이로 쓰러질 듯 다다다다 붙어있는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는 10여세대 14명의 주민들은 매일 공동 화장실을 찾는다.

이 일대 주택들의 경우 6·25 전쟁 이후 목포로 내려와 정착한 이들이 조성한 마을로, 국·공유지 위에 세워진 무허가 주택이 많아 도시가스는 커녕, 화장실도 없다.

소변기 1대와 재래식 대변기 2대를 갖춰 있지만 무허가 주택이 인근에 있어 관할 자치단체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 지나다니기도 힘들지만 무허가 주택에서 쫓겨날지 몰라 참고 견딜 수 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목포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한 비판도 높다. 지난 2014년 이 일대 인근에 위치한 목포진(만호진) 역사공원을 94억원을 들여 복원하면서도 화장실도 없는 마을 주거



겨우 비커갈 정도로 비좁은 공동화장실 입구. 주민들은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이용한다.

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목포시는 또 인근 목원동 일대에 200억 원을 투입, 도시재생 사업을 펼친다는 거창한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수십년 된 이 주택이 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0년 넘게 살고있는 김모(73)씨는 "우리도 시민 아니냐"면서 "이주대책이든, 주거 환경이든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몰리는 관광객...활기 띠는 여수 경제

밤바다·낭만포차·버스킹...

국내 대표 관광도시 자리매김

8월까지 1073만명 방문

하루 평균 카드 매출 57억원

올해 1400만명 달성 관심

여수가 매년 1000만명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해상케이블카,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끊이지 않는 버스킹 등이 어울리면서 이뤄낸 성과로, 여수시의 올해 목표인 1400만명 유치를 달성할 지도 관심사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07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는 2015년 이래 2년 연속 1300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오르는가 하면, '한국관광의 밤'에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여수 밤바다를 중심으로 지역만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 활용한 게 한몫을 했다.

밤바다 주변으로 낭만 포차촌을 조성한 데 이어 야경을 꾸렸고 주변 길거리 공연을 '낭만버스킹'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해 분위기를 더한 게 주효했다.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KTX와 여수공항을 이용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

버스를 타고 돌면서 밤바다 뿐 아니라 도심 곳곳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보폭을 넓힌 점도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는 지적이 많다. 연안 여객선과 제주를 잇는 카페리가 활성화된 점도 영향을 미



버스커들의 음악 공연을 감상하면서 '여수삼합'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은 여수 밤바다.

쳤다.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도 활기를 찾았다.

숙박업소·음식점 등 신용카드 매출액은 하루 평균 57억원에 달했다. 5월과 8월, 10월에는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매출도 증가했다.

여수를 상징하는 음식이 된 '여수삼합'을 판매하는 낭만포차는 지난해 5월에서 12월까지 16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의 구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객을 해양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웅천지구나 화양지구로 분산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매일 펼쳐지는 거리공연을 즐기는 관광객들. <여수시 제공>

■ 새 얼굴

“국민에게 봉사하는 해경으로 거듭날 것”

구 자영 서해해양경찰청장



“국민에게 봉사하는 해양경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구자영(56·사진) 서해해양경찰청장은 “해상수요가 가장 많은 서해청에서 일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해경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대한민국의 '약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 청장은 대구 달성 출신으로, 한국해양대를 거쳐 일본 도호쿠대(박사)를 졸업했다. 1997년 경감 특채로 해경에 입문, 해경청 대변인, 평택 해경서장, 해경 장비국장 등을 지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내년부터 국비 중단 여수박람회장 운영 '전전공공'

일몰제 따라 적자 운영 우려

마이스산업 육성도 걸림돌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는 언제쯤 가능할까.

박람회 종료 이후 예정됐던 사후 활용 방안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람회재단에 대한 국비 지원도 중단될 것으로 알려져 박람회장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여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일몰제를 맞아 내년부터 중단,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범, 2014년 69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75억원, 지난해 52억원, 올해 29억원을 지원받아 운영을 해왔다.

재단을 꾸러가는 데 필요한 1년 예산은 100억~110억원 정도로, 재단 수입이 시설 임대와 대관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60

억~70억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 중단으로 인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가뜩이나 더디게 진행됐던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데다, 사후 활용 방안이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다보니 재단 이사장 임기가 4월에 끝났음에도 새 이사장 선임도 늦어지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 보완도 시급하다. 현재 박람회장 내 컨벤션시설의 경우 국제회의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

라 여수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수시와 정부, 전남도의 박람회장 활용에 대한 시각차도 감지된다.


여수시는 지난달 12일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 유관기관 회의에서 '여수 엑스포박람회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매각 위주의 활용계획 대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반면, 전남도와 해수부는 관광항 증마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 용역이 진행중인 점, 유류 항만을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수세계박람회장 클러스터 지정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